

한국인의 법의식: 법리(法理)와 정리(情理)의 갈등

김 시 업[†]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김 지 영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논문에서는 한국인들의 법 불신, 법 경시와 준법의식이 희박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의 이유에 대해 논하고자 하였다. 한국인들이 이러한 법감정 내지 법의식의 심층적인 근원에는 인간관계와 정리(情理)가 규범이나 법질서에 대한 적용을 어렵게 하는 사적논리와 공적논리의 갈등, 죄지은 자에 대한 평가나, 범법행위의 단죄에 대한 한국인의 독특한 사고방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동양과 서양이 정의와 도덕을 규정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고, 단순히 한국인들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며, 거짓말을 잘하는 부도덕한 국민이기 때문에 준법의식이 약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법의식에 내재한 사적 논리 중심적, 정리 중심적 심리 때문에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비교문화적인 선행연구들과 국내의 논문들을 통해 밝혀보고자 했다.

주요어 : 법의식, 법감정, 정리(情理), 사적 논리, 공적 논리

[†] 교신저자 : 김시업, (442-76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산 94-6,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e-mail: mind@kyonggi.ac.kr

한국법제 연구원의 1994년 조사에 의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정치인(61.8%)과 공무원(11%)이라고 한다. 이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법의 제정 자이거나 법제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 법을 현장에서 적용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관해서도 82.4%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을 했다. 확실히 한국인들의 법에 관한 생각은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고 법준수에 관한 의식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갓길에 차를 세우고 교통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운전자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위반행위로 교통경찰에게 걸린 운전자들 대부분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재수가 없다’, ‘운이 나쁘다’는 생각을 한다. 다음으로 그들이 취하는 행동은 구실이나 핑계를 대면서 봐달라고 애걸하거나, 도리어 경찰에게 대들고 따진다. 이처럼 법을 잘 지키지 않고 위법행위에 관해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한국인들의 행위 이면에는 법에 관한 불신과 경시가 숨어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인들의 법에 대한 불신과 경시풍조의 원인에 관해서는 사회학적인 측면과 법문화적 측면에서 연구가 있어왔다. 양승두(1989)에 의하면 한국인들에게 전통적으로 법은 무섭고 두려운 것이며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 편의대로 아랫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일반 대중처럼 힘없는 사람이 법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피해의식이 만연되어 왔다고 한다. 기실, 근대화 이후 제정된 성문법으로서의 법은 일제시대부터 군사정권에 이르기까지 국민을 억압하고 부정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인식되었고, 법집행과 적용이 이루어지는 사법부는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으로 불리워지기도 했다. 근래에도

부정 정치인들의 사면과 엄청난 상속세를 교묘히 피해 나가는 재벌의 행태 등은 국민들에게 권력층과 ‘가진 자’들에 대한 법의 무력함을 새삼 확신하게 하고, 동시에 일상의 보다 작은 범법에 관해 둔감하도록 체화시켜 주었다.

매일의 신문지상과 TV보도가 대통령 친인척과 권력층의 엄청난 비리로 장식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서민들이 일상에서 저지르는 크고 작은 위법행위들 - 탈세, 불법주차, 쓰레기 무단 투기, 위장전입 등 - 은 사실 크게 죄의식을 일으킬 수 없게 한다. 법을 지켜 사는 사람들은 손해보기 십상이고, 위에서부터 법이 무시되는 상황이므로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준법의식은 희박할 수밖에 없다. 이를 가리켜 처벌을 두려워해서가 아닌 자발적으로 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준법에 대한 규범성이 무너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박광배, 1996).

또한 전통적 한국사회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화합과 조화를 우선시했다(이승환, 1998). 우리 속담에 ‘한술밥 먹고 송사한다’는 말이 있다. 즉 인간관계에서 법이 끼어들거나, 법에 기대어 분쟁을 처리하는 것은 항상 최후의 수단이자, 되도록 해서는 안되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상적 인간상은 ‘법대로’ 행동하는 사람보다는 ‘법 없이도 잘 사람’인 것이다. 이처럼 한국인이 볼 때 법이란 것은, 살아가는데 있어 꼭 필요하고, 구성원들의 협의하에 만들어진 약속이나 규칙이라기 보다는,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하며, 사람살이를 원활하게 만들기보다는 세상을 더 야박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식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범불신과 범경시 이외에 한국인들의 준법의식이 희박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의 심층적인 근원에는, 인간관계와 정리(情理)가 규범이나 법질서에 대한 적용을 어렵게 하는 사적논리와 공적논리의 갈등(한규석, 2000, 최상

진, Yamaguchi, 김기범, 1998), ‘죄지은 자’에 대한 평가나, 범법행위의 단죄에 대한 한국인의 독특한 사고방식(최상진, 정태연, 2001)이 자리잡고 있다.

만약 일반인들이 피의자나 피의자의 행위에 관해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피의자들의 죄가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객관적 엄격성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다면 이는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어서, 자연 위법행위에 관해 서로 경계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위법을 매우 비상식적인 일로 인식하여, 준법에 관한 의식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살인이나 유괴, 상해치사 등 타인의 목숨을 위협하는 극악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는 한, 크고 작은 비리나 편법, 위법에 관해서는, 피의자나 피의자의 행위를 매우 관용적으로 바라보며, 범법 행위를 그 개인의 도덕적, 인격적 문제로 귀결시켜, 비난하지도 매도하지도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인식의 원인으로서는 앞서 지적한 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부정부패가 심각하고 이를 단죄하는데 있어 법이 무력하므로 상대적으로 크고 작은 탈법에 관해 둔감해진 것도 한 요인이 될 수 있겠으나, 보다 심층적으로는 인정과 의리라는 한국인의 사적논리와 공적논리의 갈등(한규석, 2000, 최상진 등, 1998)이라든가 ‘마음고생’을 겪는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는 한국인의 인고심리(최상진 등, 2001)가 준법의식을 허약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본 논문에서는 동양과 서양이 정의와 도덕을 규정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으며, 단순히 한국인들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잘하는 부도덕한 국민이기 때문에 준법의식이 약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법의식에 내재한 사적 논리중심적, 정리중심적 심리 때문에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비교문화적인 선행연구들과 국내의 논문들을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

동서양의 차이: 관계속에서의 의무와 사회정의

우리는 술자리에서 친구가 다른 사람을 욕할 때, 시시비비를 가려서 친구의 허물을 깨우쳐준다면, 친구의 감정을 상하게 하리란 것을 잘 안다. 그러한 경우에 상대가 바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편들기이므로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맞장구를 치게 된다. 이것은 분명 정직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인에게 정의나 정직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의 심정을 배려하는 것이고, 단일한 진실, 어느 경우에서나 한결같은 정직보다도 상황과 관계를 고려한 융통성 있는 기준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성희롱으로 고소당한 동료교수가 부탁하면, 피해자에 대한 위증도 마다할 수 없는 것이다(경향신문 2001년 12월 25일자, ‘우조교 성희롱 위증교수 실형, 법원 ‘허위진술’로 인정’). 위증은 중대한 범법행위이자 매우 부도덕한 행위이다.

그러나 우리는 위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그 교수의 심리와 정황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위증을 부탁하는 동료교수의 사정이나 그간의 관계를 미루어 위증을 거부하는 것이 위증을 하는 것보다 더 양심에 걸리는 일로 느껴질 수 있었을 것이며, 이것은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수긍가능한 일이다.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이론에서는 개인의 자유나, 정의, 권리를 존중하고 인식하는 단계인 인습 이후 수준이 인간관계를 소중히 하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인습수준의 도덕적 단계보다 상위에 놓여있다(Kohlberg, 1976). 이러한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은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시하

고, 인간관계를 우선시하는 동양인이 서구인에 비해 미숙한 도덕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결과를 낳게 한다(Snarey, 1985). 그러나 Gilligan(1982)은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는 것과 타인에 대한 보살핌은 서로 우위를 가릴 수 없는 다른 차원임을 주장했다. 따라서 사회정보보다 타인에 대한 배려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실제로 하인즈의 갈등과 같은 가상적 시나리오가 아닌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수집해서 피험자들에게 질문한 결과, 관계책임-지향적인 개인이 개인권리-지향적인 개인보다 도덕성에서 오히려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도덕지향성을 어느 정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alker, Vries & Trevethan, 1987). 따라서 관계지향적인 동양인의 도덕관과 개인권리 지향적인 서구인들의 도덕관은 우월과 열등의 문제를 떠난 문화적 차이일 뿐, 양자는 모두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Miller와 Luthar(1989)의 연구에서도 미국인들은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보지만 인도인들은 친밀한 사이에서 상대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을 도덕적인 문제로 본다. 따라서 인도인들은 공적인 정의를 지키지 않을 때보다 대인관계를 저해할 때 훨씬 비도덕적이라는 평가를 했다. 이러한 결과는 서구인들과 동양인들이 생각하는 정의와 도덕의 문제에 있어서의 괴리를 알 수 있다. 즉 아버의 죄를 관가에 고발한 아들은 미국인의 시각에서는 정의를 실천한 것이지만 한국인의 시각에서는 부도덕한 패륜아로 간주되는 것이다. 같은 국가 안에서도 시골에 거주하는 보다 전통적인 사고를 가진 아동들은 도시에 사는 아동들에 비해 사회적 도덕 규범이 적용되는 상황과 법적 규제가 적용되는 상황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관습적, 규범적 영

역까지도 법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Nisan, 1987). 즉 어떤 사회에서 어디까지가 도덕이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의 문제는 그 사회가 가진 문화에 따라 달리 나타나며 한 사회에서 부정이나 불의로 간주되는 것이 다른 사회에서는 당연시될 수도 있고, 혹은 한 사회에서 관례나 관습에 지나지 않는 많은 행위들이 다른 사회에서는 천부적인 도덕적 감정이나 도덕성으로 그 구성원들에게 내면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친한 친구의 부탁이나 친척의 청탁을 거절하는 사람을 비인간적인 사람으로, 냉정한 사람으로, 인간성이 나쁜 인간으로 매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서구인들에게 그같은 일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판단에 따라 해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지극히 개인적 선택의 문제이다. 한국인들이 위법이나 부정을 빈번하게 저지르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별로 갈등을 느끼지 않는 것은 법이나 사회적 정의보다 강력한 규제력을 가지는 것이 인간관계이며, 인간관계의 정리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인이 왜 법을 지키지 않는가를 이야기할 때, 단순히 한국인의 준법정신이 허약해서 혹은 한국인은 거짓말을 잘 하고 남을 속이는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서와 같은 주장은 한국인의 준법정신을 분석하는데 있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동어반복적인 대답이고 자기비하의 사고일 뿐이다.

범법자의 인고(忍苦)와 인정주의

법을 지키는 것은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것이다. 이러한 준법의 상태에서는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 가타부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일단 범법이 저질러지고 그 행위가 재판대에 오르는 순간, 법률은 이전의 견고하던 응고체가 아

나라 피의자의 특성이나 정황, 판사의 역량에 의해 결과적으로 그 표현형을 달리하면서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법철학자 윌리엄 그레이는 법조문 그 자체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이 법해석을 함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다. 법조문의 많은 애매하고 추상적인 문구들은 재판관의 판결이 없이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法力을 발휘할 수 없다. 또한 한 국가의 법은 그 국가가 가진 역사적 사회적 변화의 흐름에 따라 여러 가지 새로운 법률을 삭제하거나 추가하면서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으며, 법을 작동시키는 재판관 또한 그를 둘러싼 환경인 여론의 영향이나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서 판결에 있어 영향 받아왔다(최상진, 김기범, 1999a). 훈련받은 전문가인 재판관들조차 판결에 있어 사회적 정서나 상식적 사고를 고려할 진데, 이를 구경하는 입장에 있는 일반인들이 하나의 범법행위를 나름대로 판단하는 사고과정과 감정반응은 앞에서의 논의된 문화비교적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문화적인 영향력을 강하게 받는다.

법에 관한 우리 속담에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말이 있다. 이 속담의 의미는 법이 객관성을 가지고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정, 딱한 사정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국 선거에서는 ‘옥중당선’이라는 말이 있다. 정치인이 수인(囚人)의 몸으로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말인데 비리를 저지르고 수감된 정치인들이 선거에 당선되는 경우는, 원래 그들의 우세지역이어서 당선이 예상되던 곳이기도 하지만, 부인이 눈

물로 호소하는 선거운동과 수감된 정치인에 대한 동정론이 옥중당선을 가능케 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²⁾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이나 정부관료들을 보는 일반인들은 일단 그들을 비난하지만 그들이 파면 당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검찰에 출두하는 모습을 TV에서 보거나, 그들의 심경에 관한 여론의 보도를 계속적으로 접하게 되면 측은감을 느끼고 ‘높은 자리에 있다가 일순간에 몰락하다니 안됐다’든지 ‘잘못 한번 저지르고 저런 지경이 되었구나’하는 어느 정도의 동정심을 느낀다. 이러한 동정감은 여론의 감상적인 보도의 정도와 피의자의 지위가 높아서 추락의 파장이 엄청나면 엄청날수록 그에 비례해서 커진다. 즉 실제로 몇 년을 감옥살이 한 것도 아니고, 단지 검찰에 나가 조사 받거나, 재판 받으며 고초를 겪는데도 이를 보도하는 여론에서는 김영삼의 심정(97년 김현철씨 구속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의 동정(밤새 한 숨도 자지 못한 초췌한 모습, 부모의 심정 등)이라는 식으로 피의자 자신과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물들의 침통한 분위기에 관해 동정적인 논조로 보도를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도 이러한 보도를 접하면서 한편으로는 분노하고, 그들의 부정부패를 매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피의자들의 마음고생이나 그 가족들의 심정에 공감하고, 동정심을 느낀다. 이와 비슷한 사고과정은 고통을 느끼는 피의자 자신에게서도 일어난다. 즉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인 여론보도 속에서 피의자를 지켜보게 되는 일반인들은, 저만큼 고통을 받았으니 이제 그만 용서해도 되겠다는 심정적 면죄

1) 대구지법의 박재형 판사는 간통혐의로 기소된 여성과 남성 2명에 대해, 간통죄의 반사회성이 크게 약화된 사회 분위기를 들어 불구속 입건했다(조선일보 2001년 11월 17일자, 간통남녀에 이례적 집유선고).

2) 95년 당시 중앙선관위 발표에 의하면 6.27 지방선거 결과, 각종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옥중당선된 후보가 12명이라고 한다.

부를 피의자들에게 부여하고, 피의자 자신도 ‘내가 이만큼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니 이제 어느 정도 죄값을 치르지 않았는가’, ‘나도 할만큼 했으니 용서해달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고과정은 용서나 선처를 바라는 차원을 넘어서 오히려 자신이 저지른 죄는 모두 사라지고 이제 피의자가 자신을 떳떳하다고 생각한다고 혹은 나도 피해자라는 의식까지 생겨나게 한다.

이것이 한국인의 인고응보(忍苦應報)심리라 하여, 인고로써 지난날의 허물이 용서되고 죄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심리인 것이다(최상진 등, 2001). 93년 당시 ‘사상 첫 현직검사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금품 수수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 건개 전 대전고검장은 재판을 앞두고 자신의 재판에 관여할 후배 판검사들에게 ‘나를 죽일만큼 죽였으니 선처해 달라’는 호소를 전했다고 한다. 또한 일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이씨에 대한 동정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³⁾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고통을 참고 견디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진다고 생각했다. 인고의 행위들은 행위 그 자체가 그에 걸맞는 타당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나, 한국인들에게는 결과보다도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백일기도, 새벽기도가 자식의 시험 합격이나, 전쟁에서의 무사귀향에 직접적인 원인이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행위들에는 일신의 고통을 참으면서 인고하는 과정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도래시키리라는 믿음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자식들이 시험에 낙방하거나 좋지 못한 일이 생기는 경우에 부모들은 자신의 정성이 부족한 것으로 여겼으며, 지성이면 감천이라든가, 고진감래라는 말들도 모두 고통이나 인내가 대가가 되어 그에 상응하

는 결과를 낳으리라는 심리의 표현인 것이다.

최상진 등(2001)은 그들의 연구에서 인고를 정성-인고유형, 노력-인고 유형, 순명-인고 유형, 과실-인고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여기서 네 번째 인고유형인 과실-인고의 내용과 그 심층심리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과실-인고 유형은 개인이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에게 닥친 고통을 인고하는 경우이다. 이 때 관련 당사자 뿐 아니라 타인들도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잘못을 인고를 통해 “값는다” 혹은 “죄값을 했다”라고 생각한다. 가령 사회적으로 큰 문제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나 응징에 대해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는 입장을 신문이나 방송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처럼 과실 뒤의 인고를 동정하는 것은 인고한 사람의 심정을 공감하거나 이해하기 때문이다. 만약 인고한 사람의 심정을 잘 고려하지 못해서 인고에 동정하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는 “너무하다”, “억울하다” 등의 반응을 보인다.

즉 백담사에 간 전직 대통령이나 위법행위자들에게 대한 일반인들의 용서와 동정의 감정 뒤에는 ‘인고응보과실상계’의 심리가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국인의 정(情) 중심적-심정(心情) 중심적 사고가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전두환 전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의 비호아래 자신의 죄과에 비해 터무니없이 짧은 참회의 시간을 가졌고, 재산몰수에 강력히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최고의 권좌에 있던 사람이 퇴임과 동시에 백담사로 쫓겨갔으며, 부부가 절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여론의 동정적인 눈조속에서 연일 접하게 되면서 당시 상당수의

3) 한겨레신문 1993년 7월16일자, ‘법정공방 예상과 달리 15분만에 끝나’이건개씨 첫 공판 표정’.

국민들은 전대통령 부부에 대해 분노보다는 연민을 느꼈으며, 지난날의 과오를 심정적으로 면책해 주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두 죄수 중, 한 명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 가족들도 물리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다른 한 명은 큰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못하며, 그 가족들도 편하게 지낸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을 때, 피험자들은 가족과 사형수 모두 고통을 겪고 있는 앞의 경우에 한해서,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동정하며, 형량을 감해 주어야 한다고 응답했다(최상진 등, 2001). 이러한 결과는 똑같은 죄를 짓고 같은 벌을 받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면에서 처벌을 감내하는 마음가짐이라든가, 심리적 고통의 정도이며, 만약 진심으로 고통을 느꼈고 그것을 인내했다면 과오가 충분히 용서되고 없어질 수 있다는 한국인의 처벌관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처벌관은 심정과 마음은 항상 진실하며,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마음-심정 순수관’을 바탕으로 한다. 결국 한국인에게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행위에 이면에 숨은 마음, 속마음인 것이다(최상진, 2000; 최상진, 김기범, 1999c).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해를 입히는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미안하다. 내 진심은 그런 것이 아니다’고 간절히 말하면, 그 말을 믿게 되고 원망이나 미움이 수그러드는 것을 느낀다. 반대로 아무리 값진 선물이나 득이 되는 행동을 하더라도 마음이 그 속에 담기지 않았다고 느끼면 그것을 달가워하지도 고마워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죄지은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받는 외적 처벌의 정도보다는 그 사람이 느끼는 마음경험, 마음고생의 정도가 그 사람을 동정하고 용서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심정중심, 마음 중심의 용서나 처벌관은 한국인의 정중심, 가족중심의 관계에서 싹 트는 것이다. 우리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와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고 서로를 위해주고 아껴주는 경험을 공유하면서 정을 쌓아간다(최상진, 2000; 최상진, 김기범, 1999b; 최상진, 김지영, 김기범, 2000; Choi & Choi, 2001). 이러한 우리성-정관계에서는 매사가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라는 식으로 구태여 이성적으로 따지거나 자세히 설명하지도 않고, 공정하게 손익을 계산하고자 하지도 않는다. 만약 상대가 내 마음을 읽지 못하고 기대와 어긋난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심정이 상했다’고 느끼는데, 이러한 심정 상함의 주된 이유는 우리성-정관계의 상대가 이해타산이나 공적 논리를 가지고 행동한다고 느낄 때이다. 즉 친밀관계에서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것 대비는 정리에 따라 움직이는 심정논리가 사적 영역을 넘어서서 공적인 영역에까지 확대되면서 사회정의보다는 인정에 이끌려 상대의 과실을 평가하는, 인고응보로써 과실을 용서해주는 처벌관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최상진 등, 2001). 이러한 인고응보의 심리는 피의자가 나와 정든 사람일수록, 내가 정이 가는 사람일수록 그 행위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더욱 강하게 한다.

정(情)이 가는 인간에게는 사정(事情)이 있는 법

정관계의 원형인 부모자녀관계는 자식의 부모에 대한 존경이나 애정이 아니라, 불쌍한 부모에 대한 측은지정과 심정공감으로 끈끈히 이어져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도 입증되었다(방희정, 2000; 최상진, 2000). 한국인들에게 이성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람은 곧 비정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들은 유아기에서부터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성-정관계에 있는 사람의 심정을 공경험(共經驗)하는 일에 익숙하고 민감하다. 부모들은 자식의 부모에 대한 애뜻한 감정을 통해 자식의 응중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러한 부모자식관계에서 흐르는 정서는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작동된다. 따라서 한국인이 생각하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인정 많은 사람은 항상 타인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사람인 것이다. 또한 미숙한 인간, 철부지 같은 사람은 남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밖에 모르는, 자기절제가 부족한 사람이다(김효창, 손영미, 박정열, 최상진, 2000). 따라서 한국인들은 친밀한 사람간에 서로의 어려움을 ‘봐주기’해야 하고,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의 사정을 살피게 되는데 그것은 많은 경우 사회정의적 측면에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에밀 뒤르켐에 의하면 범죄의 희생자에 대한 동정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반대급부로 피의자에 대한 증오와 가해지는 처벌의 강도는 가혹해진다고 했다(Dicristina, 2000). 즉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이 가진 인류애나 자비심과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가혹성은 정적인 상관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증오나 단죄감의 강도는 범법자와의 관계나 범법자의 처지에 대한 심정공감이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평소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 직장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쫓겨났거나, 간통으로 구속당하거나 혹은 남의 돈을 갠지 않고 잠적한 경우, 그 사람을 비난하고 도덕성을 의심하기보다는 ‘평소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었을까?’, ‘착한 사람인데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되었겠지’ 혹은 ‘재수 없이 된통 걸렸다’하는 식의 두둔을 앞세우게 된다. 나아가 친인척이나 친한 친구가 문제의 소지가 될 청탁을 해올 경우,

그것을 거절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인데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는 원망이 얼마나 자신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해서는 안될 일을 하는데 불가피하게 동참하기도 한다.

한국의 유교적 전통은 효(孝)를 충(忠)보다 강조하고 공공적 규범보다는 혈연이나 지연 관계에서의 사적 규범이 우위를 차지했다(이승환, 1998; 최상진 등, 1998). 공자가 고향에 홀로 있는 늙은 아버지를 걱정해 세 번이나 탈영을 시도한 병사의 죄를 묻지 않고 오히려 상을 내리고 집으로 돌려보낸 고사나, 아버지의 죄를 밀고한 자식에게 벌을 준 고사 등은 왜 한국인들이 법정에서 가족이나 친구를 감싸기 위해 망설임 없이 거짓말을 하는가에 관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상진 등(1998)의 내부자 고발에 관한 연구결과는 한국인의 도덕관과 윤리관이 매우 자의적임을 보여준다. 성인과 대학생 피험자들은 사회정의를 위해 회사 내부의 비리를 폭로하는 사람을 아무 행동도 하지 않거나, 동조하는 사람보다 더 바람직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고, 그 사람이 나의 상사나 동료인 경우에도 여전히 선호되고 있었지만 부하직원으로서 비리를 폭로하는 정의로운 사람을 꺼려한다는 것이다(Kim & Yamaguchi, 1996).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 정의로운 사람이 이상적인 인간이 될 수 있겠지만, 허물을 눈감아주지 않고, 나를 사리(事理)대로 심판할 것 같은 사람을 나의 부하직원으로서 삼고 싶지는 않는 것이다.

개인의 준법행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하나의 요인은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하는데(Vaughn, Huang & Ramirez, 1995), 친밀 관계 사람들로부터의 위법이나 거짓말에 대한 용인 내지 묵인은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둔화시키게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가족이나 친구 등의 친밀한 사람이 저지르는 위법행위에 관해

그것이 극악무도한 범죄가 아닌 이상은 감싸주고 용서하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한국인의 도덕적 잣대는 편익과 관계 등 상황에 따라 역동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한국인의 행동을 보고 단순히 서구인에 비해 도덕성이 떨어진다고나, 부정적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 Shweder(1991)는 도덕성의 영역은 문화적인 변인이고 많은 문화권에서 상해(harm), 권리(rights)나 정의(justice)의 개념을 뛰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또한 도덕성의 영역은 서구 문화권에서는 자율의 논리에 제한되어져 왔으나 다른 문화권에서는 더 넓은 개념으로 받아진다고 본다. Hadit, Koller 및 Dias(1993)는 도덕성에 관한 문제는 그러므로 근본적으로는 대인간의 문제이고 행위들은 타인에 대한 물질적인 것과 심리적인 결과에 의해 판단된다고 보고 있다.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특별하며 친밀한 상황에서 도덕적 판단을 맥락화(여러 종류의 사회적 상호작용, 예를 들면 자기와 타인과의 관계, 자기의 다른 수행 조건들)하고자 한다(Keller, 1984).

또한 우리는 하나의 사건을 볼 때, 그 사건의 결과나 겉으로 드러난 외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겉으로 드러난 진실 이외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정(事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귀인에 관한 이론에서도 아시아인들은 사건의 원인에 관해 사건을 일으킨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상황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이다(Choi, Nisbett, & Norenzayan, 1999; Krull, Loy, Lin, Wang, Chen, & Zhao 1999; Matsumoto, 1996, pp. 165-169; Kashima & Triandis, 1986; Semin & Zwier, 1997, pp. 55-57). 따라서 한국인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위해(危害)를 가하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는 사람의 범법에 관해서도 관대해질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예를 든 바와 같이, 김대중 대통령의 안타까운 심정을 부각시키는(김대중 대통령은 옥중서신에서 홍걸이 처지는 눈물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고 썼다... ‘이런 김대통령의 심정을 아는데 어떻게 법대로 처리하려고 건의할 참모가 어디 있겠느냐고’고 한 여권인사는 말했다. 중앙일보 2002년 4월 25일자, ‘DJ에게 세 아들은... 상상 못할 마음의 빔’) 여론 때문에 국민들은 김홍걸씨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 은연중에 동정심을 느끼게 된다.

대법원은 개정형소법 시행 내규를 통해 노부모와 거주하거나,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불구속을 권장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도 폭행, 음주운전, 밀수범 등의 범죄자들에 대해 불구속을 명했다(‘딱한 사정’엔 영장기각, 보석 관용/법원 ‘인간적 석방’ 논다 - 경향신문, 1997년 1월 12일자). 공장에 다니며 홀어머니를 모시는 청년이나, 아내가 가출하고 6살 난 아들을 혼자 양육하는 아버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 등을 불구속시킨 법원결정에 대해 신문은 ‘딱한 사정에는 영장기각, 인간적 석방’이라는 제목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믿는 한국인의 정리적(情理的) 법리관(法理觀)을 반영하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인들은 정리와 법리가 갈등할 때, 비록 행동적으로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심정적으로는 정리에 동조하고 있으며 그것이 옳다고 여긴다. 따라서 정의와 불의, 합법과 불법의 판단보다는 인정과 몰인정의 차원이 때론 더 중요하고 인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정의를 지키는 것보다 인간다운 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국인이 부모의 심정에 대해 공감하고, 그러한 부모의 심정에 대한 공감과 측은지심이 효행으로 나타나듯이(김지영, 김경호, 최상진, 2001),

불쌍한 사람의 처지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의 입장에 관한 공감의 '사정 바꾸기'로 나타나고, 인고응보로써 과실을 상계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불리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을 어길 때 죄책감을 느끼기보다 남의 사정을 살피지 못할 때 더 죄책감을 느끼게 되므로, 서로 서로 덮어주고, 감싸주는 식의 행태가 위법을 저지르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정리적 법리사회를 위한 제언

한국인들의 독특한 처벌관은 아무리 큰 죄를 진 사람도 (그녀)가 자신의 죄로 인해 괴로워하고, 심적으로 크나큰 고통을 받았다면 (그녀)를 용서하고자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인고응보 과실상계의 심리는 사실 앞으로 다시는 똑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며,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친다는 사실과 반드시 관계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자신의 죄로 인해 자신이 겪는 마음고생의 양만큼 그의 죄가 덜어졌다고 보고 용서하고자 하는 동정심이 이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 심리는 한국인의 정(情) 의식이다. 한국인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가족이나 친구 등과 정관계를 맺는 것이고, 한국인의 일상을 지배하는 정서가 바로 정인 것이다. 나와 친한 사람이면 웬만한 탈법은 눈감아 주게 되고, 나와 무관한 사람이라도 그 처지가 공감되면 불쌍하고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계윤리규범이 공적 규범을 넘나드는 정실인사와 부정부패 덕분에 한국인들의 '정'은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인들은 도덕성이 발달되지 못했고, 쉽게 유혹에 넘어가며 법을 우습게 아는 사람들로 스스로를 비하한다. 대통령은 자신의 아들 때문에 곤란에 처했지만, 측근들조

차 '법대로' 처리하도록 감히 간언하지 못하고, 그사이 국민들의 불신은 깊어만 가고 있다. 공공의장에서 벌어지는 정리와 법리의 갈등에는 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최상의 가치는 항상 '인간다움'과 '정이 넘치는 사회'이다. 결국 한국인들이 원하는 이상적 사회는 자기 자식을 아끼는 마음으로 남의 자식을 생각하고, 남이 지나다닐 때의 불편을 헤아려 아무 곳이나 불법 주차를 하지 않고, 공공소유의 물건을 우리집 물건처럼 아끼는 사회이지, 조그만 불편에도 이웃을 고소하고, 걸리지만 않으면 탈법을 저질러도 상관없다는 식의 인정이 사라진 자리를 법규범이 채워 가는 사회를 바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즉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리가 확장된 법리, 순전한 타인에 대해 마음으로부터의 공감과 배려에서 나온 준법의식을 지닌 시민들의 사회를 만들어야 하고, 법집행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법감정을 고려하고, 여러 사정을 최대한 살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판결과 강한 자에게 강한 법집행이 선행조건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심리학 분야에서 법의식이나 법감정에 관한 개인차 수준(성격적 특성 등)과 대인관계적 수준(대인지각, 추론 및 상호작용 등) 및 대집단(내집단과 외집단의 갈등, 협상 등), 집단역학 수준에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일반인들의 사회적 표상과 감정에 따른 지각의 차이나 지역별 혹은 계층별 법의식 등에 관한 연구는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고려된다. 또한 더불어 범조계 사람들이 보는 일반인의 법의식에 대한 지각 및 평가를 비교해 본다면 한국인들의 법의식이나 법감정을 두 집단간 대비시켜보는 것도 좋은 연구 과제가 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재판과정이

나 판결 혹은 양형에 있어서 한국인들은 인고적 가치나 정리적 측면이 반영되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증명해 보는 것도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경향신문 1997년 1월 12일자, ‘딱한 사정’엔 영장 기각, 보석 “관용”/법원 ‘인간적 석방’는다.
- 경향신문 2001년 12월 25일자, ‘우조교 성희롱 위 증교수 실형, 법원 ‘허위진술’로 인정’.
- 김지영, 김경호, 최상진 (2001). 효심심리학. 한국 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회, 258-264.
- 김효창, 손영미, 박정열, 최상진 (2000). 발달단계로서의 철들기 개념의 문화심리적 분석.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동계학술발표회, 30-40.
- 박광배 (1996). 법심리학. 서울: 학지사.
- 방희정 (2000). 한국 사회에서의 부모자녀 관계 특성에 대한 발달심리학적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 41-65.
- 양승두 (1989). 한국인의 법의식: 민주화 사회에서의 준법정신-사상과 정책. 서울: 경향문화사.
- 이승환 (1998). 유가사상의 사회철학적 재조명.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조선일보 2001년 11월 17일자, ‘간통남녀에 이례적 집유선고’.
- 중앙일보 2002년 4월 25일자, ‘DJ에게 세 아들은 상상 못할 마음의 빛’.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상진, 김기범 (1999a). 범죄의 사회 - 문화적 구성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1), 137-150.
- 최상진, 김기범 (1999b). 한국인의 self의 특성: 서구의 self 개념과 대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79-295.
- 최상진, 김기범 (1999c). 한국인의 심정심리: 심정의 성격, 발생과정, 교류양식 및 형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8(1), 1-16.
- 최상진, 김지영, 김기범 (2000). 정(미운정 고운정)의 심리적 구조, 표현행위 및 기능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203-222.
- 최상진, 정태연 (2001). 인고에 대한 한국인의 심리: 긍정적 보상기대와 부정적 과실상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2), 21-38.
- 최상진, Susumu Yamaguchi, 김기범 (1998). 한국문화에서의 사회정의와 집단지향성의 의미. 사회과학연구 제 11집,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33-152.
- 한겨레신문 1993년 7월16일자, ‘법정공방 예상과 달리 15분만에 끝나/이건개씨 첫 공판 표정’.
- 한규석 (2000). 한국인의 공과 사의 영역: 공정과 인정의 갈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2), 39-63.
- Choi, S. C., & Choi, S. H. (2001). Cheong: The socio-emtional grammar of Koreans. *International Journal of Group Tensions*, 30(1), 69-80.
- Choi, I., Nisbett, R. E., & Norenzayan, R. (1999). Casual attribution across cultures: Variation and universality. *Psychological Bulletin*, 125(1), 47-63.
- Dicristina, B. (2000). Compassion can be cruel: Durkheim on sympathy and punishment. *Justice Quarterly*, 17(3), 485-517.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Women's conception of the self and of morality. *Harvard*

- Educational Review*, 47, 481-517.
- Hadit, J., Koller, S. H., & Dias, M. G. (1993). Affect, culture, and morality, or is it wrong to eat your do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4), 613-628.
- Kashima, Y., & Triandis, H. C. (1986). The self-serving bias in attribution as a coping strategy: A cross-cultural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7, 83-97.
- Keller, M. (1984). Resolving conflicts in friendship: The development of moral understanding in everyday life. In Kurtines, W. M. and Gerwitz, J. (Eds), *Morality, moral behavior, and moral development* (pp. 140-158). NY: John Wiley & Sons.
- Kim, K., & Yamaguchi, S. (1996). The difference in moral judgement and percep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 between Korean and Japanese. *Paper presented at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50th Anniversary International Conference, June, 27-29, Seoul Korea.*
- Kohlberg, L. (1976). Moral stages and moralization: The cognitive-developmental approach. In Lickona (Ed.), *Moral development and behavior: Theory, research and social issue*.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Krull, D. S., Loy, M. H-M., Lin, J., Wang, C-F., Chen, S., & Zhao, X. (1999). The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 Correspondence bias in individualist and collectivist cultur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 1208-1219.
- Matsumoto, D. (1996). *Culture and psychology*. Albany: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Miller, J. G., & Luthar, S. (1989). Issue of interpersonal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A comparison of Indians' and Americans' moral judgement. *Social cognition*, 7(3), 237-261.
- Nisan, M. (1987). Moral norms and social conventions: A cross-cultural comparison. *Developmental Psychology*, 23(5), 719-725.
- Snarey, J. R. (1985). Cross-cultural universality of social-moral development: A critical review of Kohlbergian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97(2), 202-232.
- Semin, G. R., & Zvier, S. M. (1997). Social cognition. In J. W. Berry, Y. H. Poortinga, J. Pandey, P. R. Dasen, T. S. Saraswathi, M. H. Segall, & C. Kagitcibasi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nd Ed.)* (pp. 51-75). Boston: Allyn and Bacon.
- Shweder, R. A. (1991). *Thinking through cultur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Vaughn, M. S., Huang, F. F. Y., & Ramirez, C. R. (1995). Drug abuse and anti-drug policy in Japan.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35, 491-524.
- Walker, L. J., Vries, B., & Trevethan, S. D. (1987). Moral stages and moral orientations in real-life and hypothetical dilemmas. *Child Development*, 58, 842-858.
- 1 차원고집수일 : 2003. 2. 5.
최종원고집수일 : 2003. 4. 25.

Common People's Emotional Response and Attitude toward Law in Korean Society

Si-Up Kim

Kyonggi University

Ji-Young Kim

Chung-Ang University

Why, in general, don't Korean people follow the law? Possible one of the answers to this question is based on lay people's emotional evaluation to the law in which common people's evaluation to the guilty according to their private logics comparing to public logics of facts and sentence of illegal behavior. Futhermore, in psychological field, there have been some researches concerning on differences in morality such as moral judgement and evaluation including moral inference among cultures. Therefore, the reason why Korean people tend to be not law observance and law break is that Korean people are not immoral such as telling a lie and not keeping promises, but rather they have a tendency of applying their private and personal logics based on Cheong(interpersonal affection) relationships and logics to public and legal affairs.

key words : attitude toward the law, emotional response toward the law, Cheong(interpersonal affection) logics, public logics